

# 간접차별·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촉구

95.10.10

## 고용평등법 대책위 발족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등 11개 단체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충정로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과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신인사제도, 비정규직의 확대 등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불러오는 간접차별을 막기 위한 조항과 고용조건이나 고용환경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근로자과견법의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중에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한편, 오는 2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명자 명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병학 기자